

가정과 청소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가정의 답장을 낼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법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여 그 내용이 도덕과 같은 것도 있고, 도덕과 다른 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 법과 도덕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 가정은 가족들의 굳건한 성벽안으로 법 즉 강제규범이 가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은 가정문제도 가족사이의 윤리, 도덕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상업적인 이익의 도구로 여길뿐 가정과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리하는 어른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과 청소년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만 하는 소중한 이 사회의 가치이고 기반이다. 건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유망한 청소년이 성장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불화하여 갈라서거나,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아니하여 가족간 다툼이 그치지 않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이런 어른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주위에서 청소년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가정들을 수없이 보고 듣는다.

가솔하여 유희가 집대부로 일하다가 그 업주가 단속되자 부모를 불러 귀가조치시켰던 한 17세 소녀가 5개월 후에 다시 그 부근 주점에서 집대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바깥에 나오면 부모의 싸움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이 소녀에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



김희욱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부모를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나서야 청소년 탈선예방”

호 등에 관한 법을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런 데도 뚜렷하게 가정폭력이 감소하거나 청소년 비행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법률로 강제하기 이전에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을 똑바로 세우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철저한 인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가정은 건전하고 굳게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장래의 소망에서 자라야 한다. 이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화두는 바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 ‘청소년’이다.

암환자 매년 10만명 발병 5만명 사망

정부 전담부서 없이 ‘뒷집’

美·日선 ‘암센터’ 설치 국가차원 암억제 정책

생활정보

PC방등 영업시간 제한 폐지
규제 개혁위는 9일부터 만 18세미만 청소년들도 오후 10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전자오락실과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은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주치문화 시범지구 5곳 운영

서울시는 3일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봉구 창1동 지하철 상문역 주변, 은평구 역촌2동 연서로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주변, 고덕동 고덕근린공원 앞 주택가 등 5곳을 연말까지 주치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모두 20곳을 시범지구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기도 15일부터 오존경보제

경기도는 대기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존피해예방을 위해 15일부터 9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수인시를 비롯해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 구리 등 9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잠실운동장 '99 드림콘서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최하는 '99 드림콘서트'가 15일 오후 7시30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유승준, HOT 등 국내 최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며, 북한 어린이에게 보내는 사랑의 사랑도 모은다. 초대권은 7~8일 서울지역 현대정유 오일뱅크와 한화에너지 주유소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02)3669-4669

예술의 전당 일요 아외콘서트

예술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10월까지 한 달에 1~2회씩 '일요아외콘서트'가 열린다. 이 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 공연된다. 5월 야외콘서트는 23일, 2주 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오케라극장 2층에 있는 서브스튜디오에서 공연권을 나눠준다. (02)580-1300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실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3일부터 국내 최초로 'AFFIS 1500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 1,500개 읍·면 지역별로 서비스 당일부터 3일간의 날씨와 강수량을 하루 2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씩 예보한다. PC통신 등을 통해 농림수산정보통신망(AFFIS)을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등록보고서'는 97년 전국 1백21개 병원의 암환자가 모두 7만8천7백97명으로, 1년전의 7만2천3백23명보다 무려 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암 발생 부위는 위암(21.3%) 간암(11.6%) 폐암(11.3%) 자궁경부암(9.2%) 대장암(8.8%) 순이었으며, 남자는 위암(25.8%), 여자는 자궁경부암(20.4%) 환자가 가장 많았다.

당국은 이런 통계에 등혹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연간 암발생은 10만명을 웃돌고 5만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같은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암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를 파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단란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암환자의 의료 및 사회적인 비용도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암이 이처럼 엄청난 고통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국민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암 환자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집만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가운데 암관련 예산이 겨우 20여억원에 그치고, 암문제를 다루는 인력도 만성병과의 사무원 1명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립암연구소,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국가적으로 암연구와 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와 암사망률이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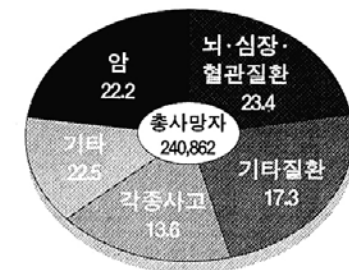
0.5%씩 줄어드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일본 역시 국립암센터 외에 현(縣)마다 암센터 두고 한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암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외국처럼 정부가 나서 조기발견과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 암은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되면 희생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암이 불치병이라는 종조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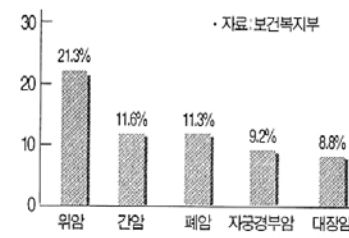
〈잡아함경〉에 "네 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의왕이라 하나네 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정부와 국민 각자가 의왕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암은 지금처럼 위협적인 존재만은 아닐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97년도 사망원인(%)



장기별 암발생빈도현황(97년)



이 75% 이상 되기때문에 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를 강조하는 예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야채, 과일, 곡식, 콩, 뿌리, 감자 등의 충분한 섭취 ▲흡연 및 음주 절제 ▲소금 및 불에 탄 음식 최소화 ▲붉은 색 육류 제한 및 생선, 닭 등의 섭취 ▲5Kg 이상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기 ▲공방의 오염우려가 있는 음식을 피하기 ▲사탕이나 과자로 간식하는 것 삼가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및 1주일 60분이상 격한 운동하기 등이다.

암예방법

40세이후 꼭 정기검진 받아야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암학회 주최로 열린 '암치료법' 강연회에서 전문의들은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증상만으로는 발병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1년에 2차례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2기 암이라 하더라도 5년이상 생존률

“코소보 유엔통해 해결”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코소보 평화안' 결의

4월말 로마에서 회의를 가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코소보에서의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지 및 분쟁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 승인 하에 유엔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의 주둔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재단이 후원한 이번 회의에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터 윌리암스, 프레드릭 디클라크, 리고베르타 멘추, 사이온 페레스, 데이비드 트림블, 요셉 로트블랫,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들은 또 코소보 난민의 즉

각적인 귀환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코소보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와 인류학적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한편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지구촌에서는 코소보 외에도 모두 20곳이 현재 내란과 인접국간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분쟁이 가장 심각한 대륙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난민만도 총 7백만명에 이르며, 유럽에서는 터키, 북아일랜드가,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 내전과 민족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

분쟁지역(분쟁발발 연도)	사망자수
코소보(98)	92천명
북아일랜드(68)	3만8천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2)	25만명
터키(84)	3만7천명
알제리	6만5천~8만명
시에라리온(92)	2만4천명
라이베리아(89)	25만명
수단(83)	1백90만명
이티(91)	수백만
콜롬비아(60)	3만5천명
콩고(96)	1만명
앙골라(75)	1백만명
르완다(94)	80만~1백만명
소말리아(91)	30만명
부룬디(83)	15만~25만명
에리트레아(98)	1만명
아프가니스탄(79)	2백만명
카슈미르	2만5천명
티베트(49)	94백만명
스리랑카(83)	95만2천명
인도네시아 동티모르(75)	920만명

심야 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기를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으며,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 0 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밀리지 않는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 난방에 적합합니다.

문의전화: 02)883-7400(대) 02)877-6090

금강산업·금강기전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황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순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결"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락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017)566-9969/017)582-7116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①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眞(眞)의 眞(眞) 그릴, 龍(龍)자그림 (수액파 차림) 특별보사!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인공불교 신목기림의 조대 피기류 추진함.

한국 수액파 방자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설명,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 (02)2242-0331, 2242-0255 (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거나 문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핀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숨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원장 이영숙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병에 개선 불자남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탐곡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902호
대표전화: (02)2275-5592~3
핸드폰: 018-277-5592